



#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선입니다. 김정은

## 천출위인의 발걸음따라 청년강국이여 앞으로!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미애를 띠는 격조와 회의의 목소리가 뜻깊은 청년들을 맞이한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다.  
청년강국, 이 위대한 시대를 더불어 위용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 가슴씩차게 안겨온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에 쏘아박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불미다에서 정순의 숨겨진 용맹을 넘김없이 펼쳐가는 청년전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기발을 펼칠 휘날리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신념의 장지로, 불굴의 투사로 사라나는 미려한 계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  
명도자의 사상과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명도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수백만 청년대군

을 가진 주체조선의 힘을 당한 자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오라,  
경에 어는 최고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즐기게 전진하고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끝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열의 청년대군이 있기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청년강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모시어 우리 청년들의 젊은 힘과 열정이 융색과 약동하는 청춘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은 더욱 배배해지고있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미애를 띠는 격조와 회의의 목소리가 뜻깊은 청년들을 맞이한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다.  
청년강국, 이 위대한 시대를 더불어 위용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 가슴씩차게 안겨온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에 쏘아박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불미다에서 정순의 숨겨진 용맹을 넘김없이 펼쳐가는 청년전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기발을 펼칠 휘날리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신념의 장지로, 불굴의 투사로 사라나는 미려한 계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  
명도자의 사상과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명도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수백만 청년대군



청년동맹발전에 쏟아부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청년운동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최승성 특음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 청춘의 위훈 빛나는 것은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탁월한 청년중시정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청년들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완성시켜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줄것입니다.》  
청년들을 맞이한 청년들의 희열과 광만이 온 나라에 차넘치던 주제 89 (2000)년 8월 28일이였다.  
불굴투쟁의 강령으로 자강도를 현 지지도 발표하고 세 번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즐거운 명절 분위기로 흥성이던 그날에도 정령이 어연이 어리어나다.  
자강도당위원회는 책임일꾼은 피로가 곱쌓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잠시나마 편히 모시고있어 오늘이 경건스럽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타고, 그래서 자신께서도 본전을 보면서 청년들을 생각하셨고 하시면서 현안이 고국적인 비가 흐르는 안광으로 장엄을 바라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청년들이

아침부터 체육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종일 즐거움과 흥분이 넘쳐나고 저녁에도 시내의 곳곳에 흥판을 벌여놓고 떠돌며 하는데 대어 보고드린 다음 정밀 지휘를 모르는것이 청춘시절인것 같다고 자기의 추상까지 덧붙여 말씀하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에게 청년들은 장군보다 내세워주시기라고, 그러면 못배달이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시대로 청년영웅도르전선일수시켰다. 그리고시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만을 그리며 맨손과 동침으로 짧은 기간에 청년영웅도르를 훌륭히 건설한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은 새로운 2000년대에 강열은 영웅적 단련되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준 현실적화투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었다.  
새로 건설한 홍주발전소도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깃들여있는것만 같아 홍주발전소라고 부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홍주발전소를 건설한 청년들이 좋아할것이고 대를 이어 가면서 청년들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입출 많이 하도록 교양하는데

도 좋을것입니다.  
주은 불길 출렁이는 장자강만에 청춘기쁨보다 솟아오른 발전소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교시를 되새겨보는 일꾼의 가슴은 울림이 미처않았다.  
어려운 혁명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수령님사용위의 제일선, 무장조국건설의 돌격선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청년중시사상이 뜨겁게 어리어나는 홍주발전소입니다.  
뜻깊은 청년절에 자강도의 청년들 격대원들이 고귀한 애국의 락과 열정을 바쳐 일떠세운 발전소를 청년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부르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그들이 이 발전소아래에 계단식으로 건설한 다른 발전소들도 청년이라는 이름을 새겨넣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 그 대로 이 땅에서 청년중시의 숭고한 정열을 아로새기는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손길이 있기에 청년, 그 이름이 위대한 우리 시대에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임수련

## 혁명의 전위투사로 내세워주시며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는 위대한 령도

공화국상징 인문들을 높은 정치적 의의와 진예없는 모범적성품과도 맺어 하려는 청년강국주인공들의 혁명적 열의가 세계적 마오르모는 시기에 우리는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최전선성령 펼쳐나가자》를 발표하신 2백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제 105 (2016)년 8월 28일이 발표된 이 로작은 현시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나오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전대적대어있는 불멸의 대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청년동맹을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불계의 전위대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로작의 거대한 생명력과 견인력이 있다.  
로작의 구질구질마다에는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전위부대로 내세우고 청년대군의 부른대 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가 역력히 어리어나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었다.》  
청년중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들의 혁명적정신과 정기간 인관하게 전진하여오신 전략적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청년전위로, 교상한 사상정신적동맹을 갖춘 혁명적인 세로 통용히 자라날수 있는것은 언제나 청년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들이 나아가길 길을 넓혀 밝혀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로고와 업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오늘 주체의 청년운동은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선성을 열어나가고있다. 우리 청년동맹이 생기발달하고 기백있는 혁명적청년조직으로 강화되고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믿음직한 전위투사로 자랑 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성과 불멸의 생명력이 더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청년중시, 청년사상의 정의로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의 눈부신 정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우리의 천만군민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을 키우는 우리 당의 령도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장사들로 준비시키는 데서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사상과 신념이 확고하여야 험난한 혁명의 길을 깨끗이 걸어갈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이라는 칭호는 역사적 광풍속에서도 굴함없이 용기백

배, 기세송환하여 진전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장사들만이 지니고 빛날수 있는 크나큰 열매이다.  
백두의 형용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인 청년전위들이 지니야 할 사상정신은 수령의 혁명정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결연한 투쟁정신이다. 우리 청년들을 투철한 수령정신사유 정신과 혁명정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념의 강자, 결연한 계급의식을 단장한 계급투쟁의 명수들로 키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령도의 의지는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도 이르고 청년들속에서 신념교양, 계급교양을 청년들이 나체, 풍세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가게 하는 데서 있다. 풍수 청년군민들과 함께 백두에서 오르시어 그들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새겨 주신분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이다. 혁명정신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숙어도 면치 않을 혁명정신, 투쟁정신에 대한 불타는 적개성을 심어주도록 하신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령도는 청년들을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 혁명의 최전선으로 출몰케 해주신 불굴의 혁명가들로 키우는 자애로운 손길이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우대는 정령 어떻게 마련될것인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동맹을 혁명의 선배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천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갑질 골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주체적인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심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열매를 따는 마지가 되게 하시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라에 인성을 적용하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맡겼다고도 쓰신 우리 수령님의 최고목의 글들이 추억깊이 어리어나다.



# 무적 필승의 위용 떨치는 주체적 해군 무력

오늘은 해군절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해병들의 가슴가슴은 조국의 바다위에 승리의 항로만을 세우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껏 부풀어오른다. 위대한 영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골없이 충실한 백전백승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피흘려 싸운 해병들의 위훈을 잊지 않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단 4척의 어뢰정으로 《유격이십십》이라고 불리던 적중순양함을 바다속에 처박아 세계해적사가 잡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우리의 미려한 해병들, 주제 39(1950)년 7월 28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세번째 어뢰는 원거리 적함정에 명중하였다. 벌써 39의 어뢰가 명중한 적함은 아직도 발출물 모르고 사격을 계속하였다. 리관군부대의 어뢰정은 수주 막속에 싸여있다. 리관군정장은 대원들을 격려하였다. 《동무들 다시한번 육박하십시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을 위

하여 우리의 몸을 바칩시다.》 최고도로의 속력을 내며 결사적으로 적순양함 500m지점까지 육박하여 적함체에 마지막 어뢰를 발사하였다. 어뢰는 적의 배를 관통하여 기관을 파괴하였다. 적함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수면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

단 4척의 어뢰정과 중순양함과의 대전, 이것은 역광상 대이도 할수 없는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한 해병들은 불굴의 신념과 불타는 적개심, 승고한 애국심을 안고 끝까지 싸워 세계해적사가 잡지 못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하기에 부로조아군사출판물까지도 《어뢰정으로 중순양함 격침,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기적이다.》라고 썼던것이다. 우리 해군의 불패의 위력은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에도 더욱 세세한 적중사였다. 주제 57(1968)년 1월 23일 오전 11시경 정상적인 정예군부를 수송하던 조선인민군 해군 구함함 35호 해병들은 원산수역 근교도부리 가까운 수역에서 적우정정함 《푸에블로》호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정치부원장이었던 박인호 동무와 6명의 수백조성원들은 적함의 선미갑판으로 비호같이 뛰어올라 단 14분만에 놀들의

간첩선을 완전히 제압하고 80여명의 적들을 포방 사로잡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 명배를 불멸시인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 이것은 일방적으로 준비된 우리 해군의 무적의 기상을 과시한 특대사건이었다. 하다면 주체적해군무력의 불패의 힘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수송보안대를 모태로 확대강화된 정규적해군무력의 이름은 《조선해대》로 명명해주시고 주제 38(1949)년 8월 28일 조선인민군 해군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세번째 바다로 물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해양무 현대적인 해군무력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적해군무력을 창설하신 그대부위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해군부대를 찾고찾으시며 해군을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힘으로 지켜내실수 있게 은근히 준비되어 아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을 바다의 불려대, 군사대, 현대적인 기술장비를 가진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기 위해

나른 로고를 바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의 술하에서 승리의 전풍을 자랑스럽게 빛내어온 우리의 해군부대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더욱더 장성강화되게 되었다. 몸소 어뢰정을 타고서 해병들과 함께 파도세찬 항해길을 헤치시며 우리 식의 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해군인들의 생활조건도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병사들의 음식감 한가지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의 어버이사랑은 해병들의 가슴가슴을 그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는가.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소를 찾아 밟고 힘찬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시어 용사들의 동사진을 하나하나 찾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사랑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과 아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비명을 금치 못해 하시며 모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조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다고 하신 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팡팡 두드려준다. 하기에 한 용사의 인제는 이렇게 눈물의 고백을 리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나는 결코 남편을 잃었다고, 우리 해병들이 생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그토록 사랑하던 함을 타고 저 푸른 바다를 달린다고, 경애하는 원수님 주신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투항로를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동시에, 인간애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전사의 삶은 영면하였다. 바로 이런 절리를 심장마다에

만장악한 영웅한 해병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싸움길에서 두려울것이 무엇이여 주지했겠이 그 무엇이라. 천제적인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총괄력으로 나아가길 앞길을 길을 활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도밑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최정예의 무력으로 강화발전되고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혈연의 동지부

대를 이룬 우리의 해군무력, 우리는 당의 출항명령을 기다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하여 함들이 그대로 어뢰가 되고 폭뢰가 되려는것은 우리 해병들의 드림같은 의지이며 어떤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 지켜선 우리 조국의 바다는 영원히 금침할법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조국의 바다를 지켜왔던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본사기자 역을

## 청년절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

청년절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2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부서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꾼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곡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로 시작된 공연부대에는 혼성2중창과 합창 《우리는 이어가리》, 시랑송과 합창 《금방서》, 기타5중창 《나의 청춘

조국에 바쳐가리》, 남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중창이 《평온의 것》, 실화와 민속극악과 무용 《흥하는 내 나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한없이 승고한 청년동시, 청년사랑의 정지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물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기적과 위훈의 역사를 아로 세겨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증산동적운동의 불길들이 정제강국건설의 전구마디에서 세인화를 놓아주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가는 청년들의 전투적기백과 광만이 너성3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금편2중주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등의 종목들에 차임되었다. 남성독창 《인민의 축원》,

시어아가 《당이며 나의 어머니시여》를 비롯한 종목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주체의 청년강국을 맞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새겨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질찬을 받았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언제나 끝까지, 땅을 따라 앞으로 나 나아가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명세를 담은 혼성중창과 하모니카중주 《정충들이 반발사 우리 땅을》, 남성4중창과 합창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등이 장내에 울려 퍼지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영광스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백을 펼친 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는 나라 청년들의 억척불변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한 공연은 종무 《청춘송가》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청년운동사적관련일참관

우리 청년들의 영원한 명절인 청년절을 맞아 청년운동사적관련으로는 함판자들의 대교가 끊이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영도의 전기간 청년동시를 전파적으로 불어넣고 청년들을 주체의 혁명적 계승자로 키우려는 혁명적 투쟁을 끝까지 계속해나갈수 있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 습니다.》

청년운동사적관련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리어 주제 105(2016)년 1월에 개관되었다. 종합자료에 의하면 청년운동사적관이 개관 때로부터 이 곳을 찾은 관람자들의 수는 무려 35만여명에 달한다. 올해에만도 6만여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포교들, 외국인들이 청년운동사적관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동시사상과 영도에 의하여 승승장구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응유하고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청년강국의 기상을 위용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청년동시를 혁명의 전파적으로 내세우고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자랑한 역사를 수놓을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청년운동영도업적이 점태되어있는 위인생존의 대기념비이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총서총과 15개의 전시실, 대형만경화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총서총에서 관람자들은 청소년층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상적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있다. 장내위인들의 필상을 우리들이 관람자들은 청년동시에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밑을 짚한 계승자들로 키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혁명의 배년대로 무려 전진실현에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시련을 얻어놓으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건 문헌들이 모여있으며 수많은 사적자료들, 사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특강적인 청년동시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영도의 전기간 빛나게 존중하시어 청년들을 혁명의 강령에 견뎌오며, 당의 믿음직한 후계자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은 함판자들의 심금을 새지게 울려주었다. 또한 함판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청년동시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영도업적을 전하는 사적문헌들과 사적자료, 사적품들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아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을 태양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시대와 역사에 지닌 사랑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로 결심할수 있게 이끌어주시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함판자들은 배우에서 개척된 조선청년운동이 어떻게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놓을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함판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위하여 청년동시, 청년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더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앞길을 더욱 휘황찬란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가다듬고있다. 커다란 감동속에 사적관을 돌아보고그 해의동무들과 외국인들도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조차 못내는 청년문화를 완벽하게 해경하시어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에 대해 격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청년운동사적관을 나서면서 함판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예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그 어떤 함정이 불어온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부리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본사기자 강 현 남

## 우리 나라 림정심선수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다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시기 여러 국제경기에서 우승하여 세계적기께 널리 알려진 림정심선수는 26일에 진행된 남자 경기 75kg급경기에서 단연 1위를 쟁취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올들어기과 추겨올리기에서 각각 116kg과 147kg을 성공시켜 2위를 한 선수보다 26kg 더 많은 중량 263kg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의 김태성선수는 여자바라손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일본들은 현실속에 깊이 빠져서 대중의 실정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기며 인민을 위한 길에 힘쓰고 그대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 더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성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은원대성리공장은 경영활동이 절되고 생산문화화위를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선 단위가 되었다.

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현대적미감이 나는 건물들과 알뜰한 구내, 사파, 배수, 물을 비롯한 갖가지 파이프나무들 밑에서 푸르스름하게 자라는 도라지와 수박, 참외, 풍물사들에서 뛰노는 파초와 사슴, 고양이원숭이를 비롯한 희귀한 동물들...

그야말로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을 본상제이다. 공장의 자랑은 어거에만 있지 않다. 종업원들을 위한 후방도대를 그려서 갖추어놓고 후방공급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공장일꾼들에 대한 자평도 이만저만 코지 않다. 그보다 더욱 기쁜것은 자기들의 일터에 대한 공장종업원들의 높은 긍지와 영예감이다. 【조선중앙통신】

## 언제나 보답의 마음안고

상봉광산 기술과 김명숙동무는 누가 보지않고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 있다. 그가 지닌 총정의 마음은 지금까지 마련한 값고많은 꽃송이들보다도 그대로 뜨겁게 여겨진다. 게다가 국가적명업들이면 김명숙동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마련하곤 한다. 그가 한송이한송이 꽃을 열기 위해 걷는 길이 그 얼마나 사

람들은 다는 모른다. 때로는 삼김도 마다하지 않고 오래내웠으나 수백대번을 다 너모기도 하면서 향기로운 꽃송이를 구해냈다. 올해의 꽃들은 명절에도 그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마련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최첨단간판에도 여러종류 수 십종의 판리도구를 마련한 그는 어찌까지 좋은 일도 찾아하는 아름다운 소령을 높이 발휘하였다. 누구나 보시고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

반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 스스로 찾아하여 아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들인 그는 조국보위초소를 지키는 인민군인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보내주었으며 여원군 읍에서 사는 한 정정로병의 생활도 성실성으로 돌봐주었다. 언제나 보답의 마음안고 삶의 자족을 아름답게 새겨가는 김명숙동무의 모습은 평안일꾼들과 로동자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다. 로동신문원 리 상 두

평양주제비평장에서 의무성 일꾼과 주조 팔스카공회국 특명전리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종업원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 온천대성식료공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그러면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남다른 공경에, 열렬한 조국애가 깊이 새겨지게 되었는가를 공장일꾼들의 사업을 통하여 보려고 한다. 주제 88(1999)년 3월, 첫 임명된 백제순제인의 심중은 두가웠다. 고난의 후파를 가지지 못한 때에서 공장형원이 무척 어려웠던것이다. 원로, 자제사장으로 생산공정들이 벌어져있고 생활상근로들이 없어 종업원들이 하나를 얻어내 나오지 못하고있었다. 이제는 손금보듯 원한 공장의 구내였지만 그는 새삼스런 눈길로 다시금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사실 공장에 대한 백제순제인의 애착은 각별했다. 오래전 이제껏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전설자들과 함께 야산기슭에 미진들 뒤야 일떠세운 공장이었다. 그때로부터 애오라지 공장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오는 나날에 어느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자신의 한 부친처럼 되어버린 정경은 일러 있었다. 《공장을 알라라 종업원들의 생활을 살피는게에서 중요인 문제의 하나가 바로 후방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나 총처럼 당도고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물러설수 없었다. 나와의 곳곳에서 시련의 흔적을 걸어내며 많은 단원들이

일어하고있었다. 죽으시나 자제의 힘으로 일떠세웠다. 그는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거기에 공장을 추켜세울수 있는 각오를 심장에 쏘아박았다. 며칠후 진행된 공장일꾼들의 회의에서 그는 후방도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 일꾼들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밑을 위해 마련해놓았던 얼마 안되는 자급까지 내놓는 지대한 모험을 보여 일꾼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후방도대를 갖추기 위한 작전을 총이 크게 펼쳐지는 지대한 결심을 공장당조직에서는 적극 지지해주었다. 당조직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지대한 의의신장으로 하여 공장이 불꽃기 시작하였다. 화창한 어느날 구원산에 대한 약속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예원들의 사기부여 부백 높여준 공장일꾼들은 다음날부터 패지우리와 온실건설을 분대있게 밀려놓았다. 완공된 우리에 새기대지를 넓고 온실에는 여러가지 남새종자들을 뿌렸다. 구내의 빈방들에 파이프나무를 심고 그밑에는 수박과 참외, 도라지 등을 심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위에 있는 땅을 개간하여 파수원을 꾸리고 파이프나무밑에 남새밭을 조성하여 종업원들에게 여러가지 신선한

과일과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나갔다. 이렇게 공장의 후방도대를 하나하나 마련해나가는 한편 일꾼들은 축산에서 실패를 열기 위한 방법을 탐구 도입하는데 주되는 힘을 다했다. 공장로력이 극히 제한되어있는 조건에서 결정적으로 축산기지의 전력을 공명에서도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 배인은 며칠밤을 깨며 사색을 길어하였다. 그 과정에 출작업반에서 나오는 술기체를 잘 리용하면 한결 현하게 일하면서도 많은 고기를 생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곧 도입되었으며 얼마후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 공에서는 축산기지의 면적을 줄이면서도 돼지고기생산량을 부백 높여 종업원들에게 우정한 식량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를 너너히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백제순제인의 일욕심에는 끝이 없었다. 어느날 그는 수심비 떨어진 곳에 칠면조를 잡기르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즉시 그곳으로 달려간 지배인은 그를 만나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정책관들을 위해 밭토고나서는 일꾼, 종업원들에게 무엇

이든지 한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아글라글 애쓰는 지배인을 보면서 그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후 그는 공장의 종업원이 되었으며 이약하게 일하면서 칠면조고기생산을 늘려나갔다. 이렇게 되어 공장은 내는 종업원들에게 칠면조고기까지 정상적으로 넉넉히 공급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업정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소, 양, 염소, 개사리, 닭, 도끼, 돼지들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대충으로 길러 여러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있는 사실, 자제관들을 개발하여 맨 감을 원히 보양해주고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종업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끝이 없다. 바로 이 공장의 일꾼들처럼 열사복무정신으로 심장의 퍼를 펼칠 줄이며 당정책을 깊사 관철하기 위해 한몸을 내는 일꾼들이 있는곳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위는 물론 후방사업에서도 전하여 일어나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공경에, 조국애가 더욱 뜨겁게 빛날게 되는것이다. 성곽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은 오늘날도 종업원들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허 일 무

# 조국은 청년들을 자랑한다

무릇 사람들은 청춘시절을 인생의 봄시절, 꿈많은 시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절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기를 원한다. 하지만 청춘시절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시절을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청춘은 조국과 함께 사는 귀중한 시절이다. 어머니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청춘의 행복과 보람을 찾고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면 일장시를 읊고 애지는 선수가 되고 동지투사가 되는 것이 청춘의 참된 삶이다. 얼마나 많은 청년친구들의 위훈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역사의 갈래마다에 별처럼 빛나고 있었는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투철한 한민족정신을 지니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 바쳐온 열혈 투사들이 바로 청년들이었다. 새 조국건설시기에 증산동적 운동의 불꽃을 남김없이 추켜들었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감없이 완수하고 조국방위 투쟁을 이어나가던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감없이 완수하고 조국방위 투쟁을 이어나가던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감없이 완수하고 조국방위 투쟁을 이어나가던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감없이 완수하고 조국방위 투쟁을 이어나가던 청년들이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이 행복하다. 이처럼 조국이 부르는 주요 전구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것을 영예로, 행복으로, 더없는 공로로 여기며 귀중한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었다. 청춘시절이 귀중한 것은 그 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들은 사랑도 희망도 영예와 행복도 당당 수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찾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름다움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청춘시절은 황유하는 시절이 아니라 창조하는 시절이다. 애주-하성철길과 이천-세포철길, 송남청년만평과 남동청년화랑합창악사, 주재사상탑과 광복거리... 내 조국 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민 창조물들이 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위훈을 전하는 기념비이기도 하다.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천원암반을 깨고 산을 뚫어내며 만년전 제를 받고 물길굴을 뚫어내던 일어난 것들이 10년 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120여일 동안에 해제하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때 두산영웅청년동지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뜻밖에 온 정이 물속에 잠겼을 때 차오른 물위에 배를 띄우고 그것을 어찌로 버리면서 순간도 착암을 멈추지 않던 전구원들, 서수에 범벅이 된 밤마치 불 속에서, 배후에서 벽으로 면서도 누구 하나 결정을 떠나지 않은 불굴의 인간들, 바로 난관앞에 두려움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이 청년들의 장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청년들이었다. 오늘날 백두산기슭 삼지연전역과 단천전역 등 불굴의 사회주의전선장마다에서 조국의 무릎을 받들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청년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강하고 영웅한 청년들의 땅과 지혜와 슬기와 담력에 의하여 청년조국의 새 역사를 엮어지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날라리며 북돋아 주는 삶을 누려가는 청년들이 또 어디 있겠나. 청춘은 젊음이 넘치는 시절이다. 산도 하룻길 마다도 배울 무

시을 힘이 생기는 시절이다. 짐을 지고 두어께가 무겁게 지어 생각하고 삼삼을 해도 불꽃이 일도록 해야 할 것을 느끼는 청춘시절에 넘치는 힘과 열정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춘시절의 힘은 과연 팔수롭다. 세상에 솟구치는 샘물과도 같이 무궁무진하다. 위대한 우리 조국은 오늘 젊은 힘이 넘쳐나는 시기의 장한 아들딸들을 부르셨다. 청춘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세상을 들끓게 하는 기적을 창조하자! 이 땅을 애국의 불령어로 달굴 김정일애국주의 열풍도 청년들의 심장에서 불어나와야 하고 세계를 압도하는 슬기도 청년들에게서 나와야 하며 천수만을 손바닥에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칠 병사로 충만한 수백만 청년전원들의 힘찬 바꾸름소리가 천지를 진감하여 울려 퍼진다.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조선혁명의 불꽃마라 주동력어나가는 이런 미더운 강철의 청년대로가 있기에 우리 조국이 젊음으로 약동하고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날마다 가속화되는 것이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쳐가라!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드립된 신념이고 의지이며 바로 그 길에 아름다운 청춘이 있고 빛나는 삶이 있다. 본사기자 신철

# 김혁청년동지대원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초 평내단 광 김혁청년동지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최열적 비차였다. 서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어깨를 부딪고 안고 돌아가는 동지대원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에서 뜨거운 열기가 울려 퍼졌다. 올해계획을 앞당겨 끝낸 동지대원들의 성과를 두고는 한방이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었다. 올해 정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친히 방문하신 심장을 피우는 심장마다에 반안인 청년동지대원들이 봉화구청년동지대원들이 2년분과제를 수행할 것을 결의해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였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초 평내단 광 김혁청년동지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최열적 비차였다. 서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어깨를 부딪고 안고 돌아가는 동지대원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에서 뜨거운 열기가 울려 퍼졌다. 올해계획을 앞당겨 끝낸 동지대원들의 성과를 두고는 한방이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었다. 올해 정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친히 방문하신 심장을 피우는 심장마다에 반안인 청년동지대원들이 봉화구청년동지대원들이 2년분과제를 수행할 것을 결의해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였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초 평내단 광 김혁청년동지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최열적 비차였다. 서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어깨를 부딪고 안고 돌아가는 동지대원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에서 뜨거운 열기가 울려 퍼졌다. 올해계획을 앞당겨 끝낸 동지대원들의 성과를 두고는 한방이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었다. 올해 정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친히 방문하신 심장을 피우는 심장마다에 반안인 청년동지대원들이 봉화구청년동지대원들이 2년분과제를 수행할 것을 결의해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였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초 평내단 광 김혁청년동지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최열적 비차였다. 서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어깨를 부딪고 안고 돌아가는 동지대원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에서 뜨거운 열기가 울려 퍼졌다. 올해계획을 앞당겨 끝낸 동지대원들의 성과를 두고는 한방이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었다. 올해 정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친히 방문하신 심장을 피우는 심장마다에 반안인 청년동지대원들이 봉화구청년동지대원들이 2년분과제를 수행할 것을 결의해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였다.

# 새 세대의 미더운 모습

김혁청년동지대원들 혁신자로서의 양태는 청년들이 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 청춘의 자서전을 위훈으로 새겨가며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속도청년동지대원들 제 6려단 2대대 녀성소대원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속도청년동지대원들 제 6려단 2대대 녀성소대원들

# 제 힘으로 행복을 꽃피워가는 보람

동신군 금석산에서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혁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밝게 선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